

2022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2.9.27.	대면회의	7/10	5	2	14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최병욱 위원장, 이희중 위원, 임재근 위원, 류용환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윤성희 편성국장, 최종명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시청자위원회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2	3	-	1	6	-	6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6	-	-	6

* 제시의견 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2022년 8월 의견제시 (시정요구)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교권 침해 논란 보도> 수업시간에 일어난 사건 현상만 보도 했는데 그 사건의 연유와 배경 등을 더 취재해 보도했으면..	현재 그 배경과 연유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해 추가 취재해서 후속 보도할 예정 <22. 9월 조치>	'22.8월
보도	<민선8기 정책 보도> 민선 8기의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 필요	오늘도 대전시 관련 정책 보도를 준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언론 역할 수행 예정 <22. 9월 조치>	'22.8월
보도	<새 정부의 지역 공약>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인 문제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취재해서 2~3주씩 방송했으면..	지역경제, 지역대학의 위기 등 지역이 같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등 네트워크에서 공동 취재 후 전국 방송 추진 <22. 9월 조치>	'22.8월
교양	<과인은 그러하오> 자막이 너무 많고, 유행어의 사용과 효과음이 과다해 시청에 장애가 됨.	자막에 대한 부담 있었는데 2회부터는 자막이 보조적인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균형감 찾을 예정 <22. 9월 조치>	'22.8월
교양	<레지스탕스 나의 전쟁> 음악적 효과가 너무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시각보다는 청각적으로 몰입되는 상황 발생	이 다큐는 음악에 신경을 썼다. 담당PD가 직접 클래식을 선곡해 깔았는데 음악이 너무 과해서 균형감을 잃은 것 같다. <의견 수용>	'22.8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2년 9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	대덕연구개발 특구협의회	과학기술단체	남/1961 21.05.01~23.04.30
부위원장	이희중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컨텐츠과 교수	대전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소외계층대변	남/1964 21.05.01~23.04.30
위원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소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단체	남/1978 21.05.01~23.04.30
위원	정훈진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67 21.05.01~23.04.30
위원	황혜진	대전공공미술원 대표	대전동구문화원	문화단체	여/1977 21.07.01~23.04.30
위원	류용환	한국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한국소비자모임	소비자단체	남/1960 21.11.01~23.04.30
위원	손기배	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	굿네이버스 충청본부	인권단체	남/1983 22.03.01~23.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여/1966 22.05.01~23.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남/1977 22.05.01~23.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여/1964 22.05.01~23.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현대아울렛 화재 보도> 현대아울렛 화재 보도 빨빠른 취재 좋았다. 하지만 사망 노동자 대부분 하청 노동자였는데 이 부분을 깊게 취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워	회의록 첨부			
보도	<지역 축제 보도> 그동안 대표축제였던 와인축제도 사 라진다고 하는데 와인축제에 대한 특 실을 따져보는 보도 필요	회의록 첨부	○		
교양	<특집 다큐멘터리 시리즈화> 올해 방송했던 다큐멘터리를 모아 연 말에 시리즈로 모아서 방송하면 좋을 듯	회의록 첨부	○		
교양	<과인은 그러하오> 과학 상담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 데 내용은 가벼운 가십거리가 많았고 정규화 된다면 과학인 출연자 다양화 했으면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점은 좋는데 논이나 해결책도 제시해 주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기타	<후원명칭 사용 행사> 대전MBC를 공동 주최로 하는 기관 행사 비판 내용 있었음. 후원 명칭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사후 관리 필수적으로 해야	회의록 첨부	○		

2022년 9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최병욱 위원장, 이희중 위원, 임재근 위원, 류용환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윤성희 편성국장,
최종명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략기획실 부국장 이은표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10분 중에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9월 대전MBC 홈페이지 시청률 게시판에 올라왔던 시청자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홈페이지 편성표에 대한 수정 1건, 홀림자막 오타 1건 그리고 홈페이지 뉴스 다시 보기 업로드 요청 1건, 과거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 요청 1건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9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이제 10월인데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MBC가 창사 58주년을 맞았습니다. 내후년은 60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최고의 지역 방송으로서 대전MBC가 확고하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지역 방송의 현실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대전MBC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상파가 위축되는 상황에 있고, MBC는 재원이 광고인데 하반기 광고가 전년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에게 보여줘

야 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늘 고민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 뉴스가 이슈를 빨아들이는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뉴스가 실수하거나 편향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2일에 창사 58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 기획에 반영하고 방향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최병욱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올 해도 100일도 안 남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서서히 정리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요. 대전 지역에 안타까운 화재 사고도 있었고 연말로 가면서 사고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변에서 서로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워낙에 다양해지다 보니 지상파 매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의 역할이 부족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지역방송들이 타 방송국들과 연대하고 협업하는 방안들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 중심의 지상파는 지역이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견주어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 지자체, 언론들이 조화를 이뤄야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정동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동 위원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늘 고민이 있는데요. 대전MBC의 제작 역량은 참 대단한데 그 역량을 어디에 투입하느냐가 고민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 입장에서는 호흡이 긴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에 힘을 실으면 이번과 같은 좋은 다큐멘터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기존 프로그램을 잘 조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어쨌든 시사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영상으로 단신 처리하거나 당일 뉴스로 끝내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에서 처리하는데 한계도 있고 이런 좋은 다큐멘터리 대신에 시사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드릴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구요. 확실한 건 대전MBC는 역시 무시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다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협력 방법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정미 교수님

마정미 위원

다큐멘터리에 대한 칭찬을 자주 해서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만 창사 58주년 특집답게 ‘검은동굴’도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군함도, 홋카이도 일본 열도에 있는 동굴 지하 갱도 탄광에서 조선인들의 징용에 대한 참혹한 역사 기록들을 아주 잘 보여줬고요.

아름다운 제주도에 그런 동굴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제주도 동굴, 부평 지하호, 경희궁 방공호를 찾아내고 다룬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사료 발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식민지 시대의 참혹한 현실과 강제동원,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노동 등을 잘 조명해서 침략 상흔들을 잘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대전MBC가 이렇게 다큐를 잘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력과 혹은 경험 혹은 구성원들 간의 협업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큐는 아주 훌륭하네 그 외 프로그램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은 가장 대표적인 시사프로그램이라 기대가 커서 늘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 특히 9월에는 아주 중요하고 다양한 소재를 다루어서 좋았습니다. 붕괴 위기에 있는 지방 대학의 문제, 촉법 소년의 문제, 주민 참여 예산안의 문제점과 해법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요.

주제는 좋았으나 그 문제 제기에 따른 논의나 해결책은 항상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쟁점과 논의 해결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저널리즘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노력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을 전합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한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패널의 다양성이나 스튜디오의 리모델링도 시간이 지나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먼저 하자면 어제 현대아울렛 화재 보도와 관련해서 전국 메인 뉴스가 돼버렸는데 아주 발 빠르게 취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팩트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 정지선 회장의 현장 사과 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룬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과인은 그러하오’ 프로그램인데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서 첫 방송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본방 가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첫 방송 때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현실화된 느낌입니다. 과학으로 풀어보자는 취지가 결과적으로는 잘 담만 나오는, 너무나 사소한 질문과 답변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방송된 내용이 학교에 관한 것인데요. 술 마시면 헤어진 애인에게 왜 전화를 하는가? 공대생은 왜 체크무늬 옷을 좋아하는가? 썸과 어장 관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입시 지옥에서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해맑은 고민, 또 취업 전선에 치열한 대학생들의 고민이 단지 그것뿐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과학한 인생선배의 상담이 다른 각도에서 고민이 필요하겠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기배 위원님

손기배 위원

단톡방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지해 주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꼼꼼히 봤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팩트 전달이 굉장히 잘 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흥미 있게 잘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이밍도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요.

‘검은 동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처음에 방송을 봤을 때는 군함도나 사도광산에서 피해를 당했던 강제노동 징용자들의 익숙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몰랐던 우리나라의 동굴로 확장이 되고... 그런 동굴이 만들어진 계기들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하나씩 밝혀주는 내용을 보면서 이 ‘검은 동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강제징용 피해자의 얘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노동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위주로 담았다면 크게 다르지 않는 다큐멘터리 이었을 텐데, 일본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 그리고 구성원들의 인터뷰가 많이 담겨져 있었고, 그 들의 문제를 그 들의 시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봤을 때 저 들도 인정하는 사실이구나 하는 내용을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큐멘터리 구성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었지만 저는 식상하지 않았고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특집 다큐멘터리가 제작된다면 독도와 관련된 내용도 다뤄보면 더 흥미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저도 일본인 시각에 대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얘기를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중 교수님

이희중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캠페인 ‘고마워유 같이가유’는 다른 행사나 이벤트, 협찬성 캠페인과 다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스토리는 좋은데 타이틀 가독성이 떨어져요. 큼지막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정책적으로 이걸 회사 브랜드에 네이밍해서 문화사업을 펼쳐 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검은 동굴 어둠 속의 진실’은 창사 특집으로 방송했는데 8.15 특집으로 했으면 어떨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퀄리티가 서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특집 다큐멘터리를 시리즈로 연말에 한 달 동안 재방송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은 동굴’이 일제 만행 인데, 목포 고하도에도 있고 흑산도에도 있고 많습니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격납고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비행기 활주로도 그렇고, 격납고 차량 보관소도 많은데 서울MBC에서 만든 “~의 눈물” 시리즈처럼 ‘검은 동굴’ 시리즈도 기획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감사합니다. 8.15 특집으로 ‘레지스탕스’를 했었고 이어서 이 방송을 하니 광복절 특집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레지스탕스’를 연말에 전국 방송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것도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임재근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재근 위원

저도 창사 58주년 다큐멘터리 ‘검은 동굴’을 너무 잘 봤고, 대전MBC 창사 다큐가 아니라 MBC 특집 다큐 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의 대표적인 현상이 일본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국내 여러 장소들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해남의 옥매광산 사례는 특별한 여러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로 끌려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전체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다만 전국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지만 지역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끌려갔던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그런 현장들은 없었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우리 대전 지역도 강제징용의 현장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 또한 관심 갖고 살펴봤으나 그런 현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둔산 지구에 있었던 대전 비행장을 닦을 당시에도 분명히 강제 징용을 통해서 그 현장에 많은 분들이 끌려갔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그냥 소문처럼 들리는 가십 정도로만 전달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도 우리 대전에서 군함도에 끌려갔었던 김한수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셨다면 그 분의 이야기를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의 아드님 증인들이 덧붙여졌더라면 좋은 다큐에 지역성까지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동굴은 아니지만 일제기에서 착취와 강제 징용의 현장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증약 터널’인데요. 1km에 달하는 돌 터널을 뚫지 못해서 우회하면서 속성 구간으로 뚫었던 터널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올해 또는 내년 쯤에 대전시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깐요. 이와 결부시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과인은 그러하오’ 인데요. 지난달에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 주셔서 저는 몰아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3편의 프로그램이 방영 되었고, 약간 가십거리로 간 측면이 있긴 한데 한 방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시리즈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어떤 때는 가벼운 내용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지한 상당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4부작으로 편성된 만큼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이 혹시 정해졌는지가 궁금했구요. 2편 까지는 김미려 씨가 등장했는데 3편에는 갑자기 사라져서 이 부분도 궁금했습니다. 혹시 본방으로 편성된다면 저는 과학이라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예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편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학기술을 표방하고 있는 대전의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인이라고 하시는 두 분의 과학자들이 모두 남성이다 보니까 지역의 여성 과학자분들도 꽤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고정 패널은 아니더라도 여성 과학자들의 출연들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해서 MBC 전국 보도의 첫 방송으로도 나왔고, 지역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심층 취재가 되었습니다. 후속 보도로서 화재 원인이 제연 시설 부족이라는 후속 보도도 이어졌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7명의 사망자들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 또는 용역 노동자였습니다. 자막으로 언급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취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여름에 반 지하에 사셨던 분들의 사망 사건이라든지 지하시설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 또는 하청 근로자였는데, 이런 분들이 피해가 큰 이유에 대해서 한 발 다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M'에서 'M과 함께 콘텐츠 연대기'에 두 분의 국장님께서 직접 출연을 해주신 프로그램 재밌게 봤습니다. 초창기에는 카메라 앞에 많이 나왔던 분들이 최근에는 카메라에 등장을 안 하셨는데 직접 과거의 풋풋했던 그 시절의 모습을 보니까 시청자로서 재미 있게 봤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정말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류용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용환 위원

어제 있었던 화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사용자들이 밴드 같은 곳에서 굉장히 긴장들을 하고 있어요.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보도에서 전기차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났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전부 없애자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요. 그렇지 않아도 입주민들과 전기차 사용자들과 갈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번 사건으로 친환경 전기차에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글들이 단톡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난 23일에 58주년 기념식 행사를 하셨는데 시청자 위원님들도 초청을 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는 자리를 만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7일에는 연정국악원에서 천년지무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활동하는 SNS에 안 좋은 비판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날 공연이 끝날 무렵에 사회자가 관람객들한테 참석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왜 쳐달라고 관람자한테 이렇게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제국가도 아닌데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글이 있길래 이 행사를 살펴봤어요. 어디가 주최 주관인지 봤더니 홍보물에 대전시하고 대전 MBC로 나와 있더라고요. 대전MBC가 후원으로 되어 있고요

후원명칭 사용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자칫 그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행사가 본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처리되지 않고 사행성이 있다든지 아까 지적한 것처럼 가십거리 일들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후원 기관들이 행사를 추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주관 주최를 보게 되거든요. 대전MBC에서 이번 일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점검을 하셔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후원 명칭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후 관리는 필수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축제의 계절이에요. 대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인 와인 축제가 내년엔 중단된다고 하잖아요. 와인 축제 말도 많은데 보도 차원에서 와인 축제에 대한 특실을 한번 따져보는 결산 보도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제가 살려면 결국은 차별화된 소재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대전의 축제들이 다 그만그만해요.

계룡군문화축제 같은 건 대전에도 자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개최해서 대전을 축제장화한다면 이 축제를 상당히 키울 수 있을 텐데, 계룡에 모든 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건 대전에 문화재청과 문화재 연구원이 있는데 문화재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경주에서 하고 있어요. 경주에 문화재가 많다는 이유로 3-4년째 하고 있는데이. 제가 몇 차례 제안을 했지만 안 받아주었는데, 대전에 유관 기관들도 다 있고, 또 대전 과학 단지에서 문화재 보존과 연계시켜서 이 문화재 축제를 한다면 대전의 색다르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재를 뺏긴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보도 요청을 드릴게 있는데요. '회상사'라고 우리나라 족보의 90%를 생산했고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데, 수년째 이 회상사와 관련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상사에 있는 족보와 시설들을 관에서 인수해 달라고 해서 시나 구에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고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물관을 만들 만한 자료가 없다는 거죠.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자료들도 많이 유실되고 지금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별로 없고 그것만 가지고 박물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5년 이상 됐는데 지역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인터넷 뉴스에서 한두 개 기사난 걸 보긴 했는데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거의 한 번도 못 봤어요. 지역의 5-6년 묵은 오래된 사건으로 좋은 자료가 있고 시민이 원하면 할 수 있겠지만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이 아니라 판단했는데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전MBC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이장 공적비 논란 기사를 봤는데요. 바닷가 지역에 이장 공적비를 세웠는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과 현대판 선정비라는 비판을 하던데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논산은진면사무소 앞에 면장 공적비가 있는데, 아쉽게도 그 옆에 문화재급의 오래된 조선시대 때 선정비가 18개가 쭉 나열돼 있는데 그 옆에 어마어마한 크기로 보호각까지 설치해 세워져 있어요.

지역 언론에서 어떻게 다뤘나 검색을 해봤는데 논산 인터넷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하나 다뤘더라고요. 유감스럽게도 선정비 당사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고 현직 조합장으로 있는 데 선거법 위반이 크지 않고 그 혐의를 벗어나서 출마할 수 있었다 라는 긍정적인 뉴스로 서평에 사진까지 실어 오히려 지역민들이 이 분의 공적을 기리는 내용이다 라는 홍보성 기사였습니다. 이 번 기회에 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떤지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좋은 취재 거리와 아이디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제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동굴’ 다큐멘터리 관련해서는 중간 중간 말씀드렸고 ‘과인은 그러하오’에 대해 첨언을 한다면 이게 예능 프로인가 교양 프로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조금 헷갈렸어요. 예능이라면 말장난도 있을 수 있고 재미로 갈 수 있겠지만 교양이라면 과인들이 얘기는 많이 해주시는데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면서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막이 아직도 저는 어지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자막이 자료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미와 지식을 다 전달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저걸 만들까 하는 생각과 어려운 딜레마가 거기에 남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지식거리도 꾸준히 생산해 내야 되고 그것을 또 재미로 풀어야 된다는 고민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말씀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쪽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보도부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울렛 화재 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화재 보도는 화재가 더 확산될 경우에 이 지역 주민들까지도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 시스템에 따른 보도를 했어요. 오늘은 위원님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취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원인은 모르지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화면 입수를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화재가 어떻게 번져갔는지, 전기차 얘기가 나오는 건 어떤 부분인지, 왜 화재가 초기에 그렇게 급격히 커졌는지, 산적해 있는 종이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해 보는 뉴스들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숨진 분들 대부분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재난재해 시에 가장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인데 하청업체 소속이 여섯 분이시고 외부 용역 업체가 두 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져 대응을 한다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는 아직도 현장에서 되풀이 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 사업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짚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고 이틀째인데 첫날에는 인력 배치 관계로 재해 보도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취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전의 축제들이 여러 축제들이 있었고 사라진 축제도 많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인가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 노점 도시라고 하지만 실제 대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는 드물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 앞으로 계속 취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상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들여다보겠습니다. 갈등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해 동안 내재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들여다 보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희 편성국장

편성국장입니다. 파일럿으로 방송한 ‘과인은 그러하오’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가볍게 가벼린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검은 동굴’ 시리즈화와 연말 시리즈를 편성하면 좋겠다 라는 숙제를 던져주셨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검은 동굴에 그런 역사적 진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미처 몰랐고요. 와인 창고라든지 젓갈 창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역사적 진실들을 가지고 있는 동굴일 거라고 보여 집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최초의 카세트로 시작되는 인트로 부분인데. 거기서는 아마 생생한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들을 녹음이라든지 홈비디오라든지 역사적 사료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생생함을 전달하겠다 라는 의도였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유골함 장면에서는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분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가 있지 않을까... 어떤 사과라든지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실 규명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숙제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리즈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과인은 그러하오’는 4부작으로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죠. 직장, 가정, 학교, 마지막은 모든 과학 상담소라고 해서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가위눌림, 꿈 이야기, 요즘에 인기 있는 MBTI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만약에 정규화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지함과 가벼움을 적절하게 오가는 스킬들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정규화가 된다면 장년이나 노년의 과학자가 등장해서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도 필요하고 성비에 대한 고민들까지 녹여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미려 씨는 원래 2회차 까지만 출연 예정이었고 3, 4회차는 사연 당사자가 직접 출연을 했죠. 여학생 남학생 둘이 출연해서 스튜디오를 채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풍성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애초에 구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미려 씨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 시리즈 말씀하셨고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방송하고 말
게 아니라 연말에는 저희들이 대전MBC 스페셜존이라고 만들어서 그동안 했던 3.8 다큐라든지
8.15 특집이라든지 앞으로 10월, 11월에 방송할 '격렬비열도' 같은 특집들을 일목요연하게 정
리해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편성 전략들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연에 대한 말씀... 그때 제가 공연을 봤었기 때문에 말
씀을 드리면 그 공연은 홈커밍데이 성격의 행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술감독으로 있었던 분들이 무대를 채우고 그 동안 훈련장이었던 분들도 공연을 하다 보니 약
간 잔치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초대 예술 감독인 분을 지명하고 '사랑합니다' 이벤트를 진
행했는데 현장에서는 크게 불편함 같은 건 없었어요. 행사 자체가 약간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
에 예우 차원에서 초대 예술 감독을 지명하고 박수를 쳐주는 이벤트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시각각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의적절한 주제를 잘 잡는데 여전히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그런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결국 우리가 의도한 치열한 공방이 거
기 빠져 있지 않나... 그래서 패널이나 내용 구성을 더 공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
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입니다. 후원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부 단체나 기관에서 방
송사를 후원사로 유치해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사 자체의 공신력이라든가 또 직
간접적인 언론사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후원사 명칭 사용 요청들을 많이 해오는데
요. 저희가 가급적 거릅니다만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서 박하지 않게 후원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겠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중에서 시립교향악단과 시립무용단은 대전MBC하고 공동주최 협약을 맺고
수 년 동안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요. 민방이 뒤늦게 연정국악원과 합창단을 분리
를 해가지고 공동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최가 연정국악원 자체 행사였는지 아니면
장소가 연정국악원인 행사였는지 진상을 알아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인 발언
등 의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저희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축제 연출 대행사업을 합니다. 축제 연출
대행 사업을 하면 지역 축제 행사 기획을 하고 행사 가수를 섭외하고 무대를 설치하고 프로그
램을 진행하는 것 들인데 대전MBC가 오래 전부터 도전을 해서 많이 수주를 하는 편이고, 특
히 와인페스티벌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수주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해왔고 대전시장개
서 새로 취임하면서 뭔가 차별화를 위해 폐지를 선언했는데 행사가 DCC2에서 새롭게 개최하
면서 규모라든가 외국인들의 관심들이 많으니까 내부적으로 아쉬움 속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출 대행 기관으로서 대전시와 한번 얘기할 용의가 있고요. 10월에 대전 0시 뮤직페
스티벌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또 그 다음 주에 대전사이언스 페스티
벌이 있습니다. 3개 축제를 모두 대전MBC가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올해 대전에서 개최
되는 축제 중 중구에서 하는 효문화뿌리축제만 제외하고 동구 대청호 벚꽃 페스티벌을 시작으
로 유성 온천축제까지 모두 저희 대전MBC가 수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진행을 하는데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대전시 아니면 각 구청이 되
겠죠. 정해진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
를 내고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하지만 공영성을 추구하는 방송사로서 수익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축제의 품질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하는 축제들도 상당한 진통 끝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최대한 욕을 먹지 않고 위원님들 모시
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축제를 성공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임재근 위원

축제는 대전MBC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주인지요?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총감독, 총연출을 대전MBC가 직접 말합니다. 물론 일용직 노동자들
을 사용하는 건 직접 다 할 수가 없어서 전문 업체를 섭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환균 사장

회상사 관련해서는 제가 우연찮게 구청장들이나 시장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데 지자체장들은 잘 방어하고 계시던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때는 다
뤄볼 만한 일이 될 것 같고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어 차원이 아니라 진
지하게 검토를 했고 뭔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류용환 위원

대전시나 구는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했는데 국회의원이나 시장, 구청장이 바뀔 때 계기가 되
면 수면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옵니다. 책임자가 바뀌면 다시 검토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도 문제가 제기돼서 해당 부서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환균 사장

지자체에서는 늘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이은표 간사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최병욱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인사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환균 사장님께서 마무리 인사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오늘 정말로 많은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견들을 주신 것 같아요. 단순히 방송을 모니터하고 의견만 주신 게 아니고 축제 얘기도 그렇고 캠페인 얘기도 그렇고 MBC가 가져가는 아이덴티티 이런 쪽에서도 생각해 볼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같이 고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미디어 환경도 많이 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도 취재, 다큐멘터리 제작 등 방송 모든 곳에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시청자로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10월에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더욱 더 힘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균 사장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숙제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 대전은 뭐라고 하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과학도시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과학 그러면 어렵다. 대덕 연구단지 과학자들도 늘 고민입니다. 대중들한테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주지 하고요. 그런데 그 건 얼른 봐가지고는 잘 모르고요.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오랜 믿음입니다.

예전에 EBS에서 지식채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5분짜리였는데요.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데요. 미국 휴스턴에 우주선 발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오는 우주선의 지름 크기가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왜 그 규격이 생겼지? 우주처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작게 만드는 건 되는데 더 크면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는 휴스턴으로 오려면 우주선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철로를 이용해서 가져와야 되고 터널을 지나야 돼요. 그 터널 크기를 넘으면 그 터널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터널은 왜 이 크기였나? 철도 궤도 넓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철도 궤도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게 아니예요. 그 때 자동차 바뀌고 기관차 넓이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산업혁명 때 이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로마 시대로 갑니다. 로마시대 마차 크기예요. 로마 시대의 이 마차 넓이는 어떻게 정해졌지? 말 두 마리 크기입니다. 이걸

5분 동안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그러면 단지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팩트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다.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과학을 쉽게 이야기해보자 하는 거였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전MBC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가치와 역사를 발굴하고 이러한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상파가 쇠락하는 산업이다 라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지상파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바로 그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고 기록해서 보존하는 것 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상으로 9월 시청자회를 마치겠습니다.